

제주학과 제주문화의 미래 지향적 제언

좌혜경(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 서언

21세기는 지역이 국가의 종속단위가 아닌 세계화(globalization)와 조응하는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학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학은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적인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의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수는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주학은 개방의 틀이라는 상황에서 지역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서 학제적으로 체계화한 통합 학문¹⁾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제주학은 지역연구의 ‘모델’이나 ‘표본’이 되어야 하고, ‘제주도’라는 지역중심의 주민생활에 공헌하는 문제와 직결되는데, 그 전망을 ‘넓히면’(광역화), ‘밝히면’(정보화), ‘뭉치면’(통합과학), ‘주민중심’(인본화)에 두었다.²⁾

또한 지역주민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 구현이라는 토대 아래 실천적이고 발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공동의 유대결속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지역공동체, 상징적 공동체를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제주학은 제주를 돌아볼 수 있는 자화상이면서 자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준거 틀로서 제주의 특수성을 보편화 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학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제주학연구센터를 개설하여(2011. 08), 연구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로 연구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지식자원의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학’이라는 학문적인 영역 속에서 제주문화의 가치를 끌어

1) 전경수,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 제주학,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연구』 제14집, 제주학회, 1997.

2) 전경수, “지역연구로서의 제주학의 방법과 전망”,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학회, 1998.

내어 자원화하기 위한 방향설정을 과연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춰 전개해야 할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그 논지를 펴고자 한다.

2. 문화경쟁력과 제주학

흔히 현대사회를 지식정보화 시대 또는 문화의 시대라고 지칭한다. 곧 지역이 국가의 종속단위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세계화의 상대적 자율개념으로 삼고, 지역단위의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문화다양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형편이다.

우선 지역 유·무형 문화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콘텐츠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는 것을 먼저 모색해 볼 수 있다. 그간의 제주학 관련 연구 성과란 제주학의 발전적 지향점에 대해 대체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예컨대 유철인은 제주의 독자적인 문화와 제주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정 지역은 자연적 공간이나 공동의 유대와 상호작용으로 정체감을 강조하는 상징적 공동체이므로 관련 지역학인 제주학, 서울학, 부산학, 전주학, 대구학은 지역 간의 사회 문화의 유사와 차별성에 의해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³⁾

염미경은 전지구화 시대에 정보화, 지방화를 겪으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연구를 강조하는 한편, 세계화와 지방화 흐름 속에서 제주도 연구는 사회사, 생활사, 문화사에 대한 관심으로 타지역학과의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이상철은 제주학 연구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선행적인 제안을 하면서 전체적인 작업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네트워크화 방법을 통하여 학술과 일반적인 일차자료 및 사실 등을 구축하여 제주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⁵⁾

필자는 제주학의 자료구축을 통한 자료공유적 측면과 정보화, 대중화를 넘어서 실용화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문화경쟁력을 확보하여 제주학 자원의 자산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래지향적인 제언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 자료 구축은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자료만이 아닌 전통문화 속의 원형적 요소들을 콘텐츠화하여, 문화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로서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한다는 점이다.

3) 유철인, “지역연구와 제주학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제13집, 제주학회, 1996.

4) 염미경, “지역연구의 성과와 전지구화 시대 제주학의 발전방향”, 『제주도연구』 제14집, 제주학회, 1997.

5) 이상철, “제주학연구의 성과와 과제-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학회, 1998.

특히 문화원형 자원의 활성화 작업이 이루어진 콘텐츠는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재의 가치체계가 결합되면서 동시에 발전하는 매우 역동적인 창조적 산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6)

해당지역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지리적 특징이나 문화자원의 특수성을 연구하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의례나 스토리 등을 끊임없이 재발굴, 재발견, 재창조함으로써 각 지역이 관광명소가 되고 더불어 경제적 부가가치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7)

곧 제주학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일정의 지역문화 세계화 과정은 가장 로컬한 학문이 글로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가치의 자산화를 의미한다. 8)

특히 제주의 전통문화 관련 민요, 전설, 신화, 해녀, 돌문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창작 등 작업에 풍부한 소스를 제공하고 상품화 등 지식자원화를 통해 제주학의 위상과 역할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 3년간(2012~2015) 제주학 DB화와 연구물 축적을 수행하고, 지역학으로서의 문화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1단계 작업을 시작했다. 9)

제주학 자료의 축적은 디지털화 작업이 우선이다. 이는 자료의 영구보전적 측면만이 아니라 표준 분류체계를 정하여 효과적인 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제주학연구센터는 개인(학자 또는 사진가 등)이나 기관,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제주학 연구물, 간행물, 고문서, 구술이나 음성자료, 영상물, 사진 등의 디지털 자료들을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곧 제주관련 연구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보전차원만이 아닌 실제로 신진 연구자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통해 대내외로 알림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문화경쟁력이 축적된 지적자산들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6)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콘텐츠 산업 정보 포털

7) 정정숙,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6.

8) 조규익, “제주학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그 모범적 사례의 수립을 지향하며”, 제주학연구센터 개소기념세미나, 2011.

9) 줄고,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제주학연구센터, 2012.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아카이브(www://jst.re.kr)에는 10000건의 제주학연구물, 고문헌, 사진, 영상, 제주민요, 전설을 비롯한 구술 음성, 신문기사, 조선왕조실록 등 제주역사 자료가 탑재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3. 지역문화의 진흥과 제주학

지역학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더라도 제주학 학문의 진작이란 제주문화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찾기는 물론 자긍심 향상을 촉진시키면서, 문화콘텐츠 생산 측면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더불어 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동기부여가 충족되면서 그 파급효과도 크다고 예상된다.¹⁰⁾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학의 기여와 문화적 활용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그 논의를 활발히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주요 요소인 콘텐츠 산업은 지역문화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구현할 핵심기반이다. 곧 충분한 문화상품의 기획과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하여 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¹¹⁾ 제정은 지역문화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총괄한다.

이 가운데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문화 활동을 말한다.

제주의 지역문화적인 요소들을 찾기 위해선 일정한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의 아카이브시스템에 저장되어있는 지역문화 요소가 될만한 콘텐츠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 정정숙, 앞의 글, p.127.

11) 법률 제12354호, 2014. 1. 28 제정, 2014. 7. 29 시행

섬음마을	기술과학 > 의, 식, 주 사회과학 > 민속 종교 > 기타	322건
서재철사진	기술과학 > 농축업 기술과학 > 산업업 기술과학 > 수산업 기술과학 > 의, 식, 주 기술과학 > 의학 문학 > 구비문학 사회과학 > 경제교육 사회과학 > 고고학 사회과학 > 문화학 사회과학 > 민속학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과학 > 여성학 사회과학 > 정치학 순수과학 > 생명과학 순수과학 > 소생물학 순수과학 > 지질학 순수과학 > 해양학 순수과학 > 천문학 역사 > 4,3 역사 > 고고학 역사 > 문화학 역사 > 사회학 역사 > 인물사 역사 > 제주사일반 예술 > 음악 종교 > 무속	1522건
사면따라 칠백리	역사 > 고고학 역사 > 문화학	57건
제주건축문화	기술과학 > 건축 기술과학 > 의, 식, 주 사회과학 > 관광학 사회과학 > 문화학 사회과학 > 사회학 순수과학 > 생명과학 순수과학 > 천문학 역사 > 4,3	21건
전통향토음식	기술과학 > 의, 식, 주	26건
재일제주인 '나의 살던 고향은'	사회과학 > 사회학 역사 > 사회학 역사 > 제주사일반	31건
잡역요	예술 > 음악	11건
잠녀기사	사회과학 > 여성학 언어 > 제주어	215건
의식요	예술 > 음악	28건
유희요	예술 > 음악	19건
원담	순수과학 > 해양학	85건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요	예술 > 음악	87건
제주해녀	기술과학 > 의, 식, 주 문학 > 구비문학 사회과학 > 문화학 사회과학 > 여성학 언어 > 제주어 예술 > 기타 예술 > 음악 종교 > 무속	169건

제주자연	기술과학 > 의, 식, 주 기술과학 > 의, 식, 주 문학 > 현대문학 사회과학 > 제관과학 사회과학 > 제관과학 사회과학 > 제관과학 순수과학 > 제관과학 순수과학 > 제관과학 순수과학 > 제관과학 순수과학 > 제관과학 역사 > 인물 예술 > 기타 종류 > 기타 종류 > 학술조사	46건
제주역사	기술과학 > 의, 식, 주 기술과학 > 의, 식, 주 문학 > 구비문학 사회과학 > 제관과학 사회과학 > 제관과학 사회과학 > 제관과학 사회과학 > 제관과학 사회과학 > 제관과학 순수과학 > 제관과학 순수과학 > 제관과학 순수과학 > 제관과학 순수과학 > 제관과학 역사 > 제주어 역사 > 4.3 역사 > 고고 역사 > 문화 역사 > 사회 역사 > 인물 역사 > 제주사일반 역사 > 지리 종교 > 기타 종류 > 기타 종류 > 제주학	288건
제주여성사	기술과학 > 의, 식, 주 문학 > 구비문학 사회과학 > 여성 예술 > 음악	21건
제주어동요	예술 > 음악	20건
제주방언	언어 > 제주어	11건
대한뉴스	기술과학 > 건설 기술과학 > 건설 기술과학 > 산수 기술과학 > 수산 기술과학 > 임업 사회과학 > 임업 순수과학 > 임업 순수과학 > 임업 순수과학 > 임업 순수과학 > 임업 종류 > 학술조사	141건
노동요	예술 > 음악	157건
제주출향해녀	사회과학 > 여성	500건

한라일보	사회과학 > 문화 사회과학 > 민속 순수과학 > 식물 순수과학 > 지질 순수과학 > 해양 순수과학 > 환경 역사 > 고고 역사 > 문화	478건
포구	순수과학 > 해양	115건
청민요	예술 > 음악	80건
조선왕조실록	역사 > 제주사일반	1754건
제주민요	문학 > 구비문학 사회과학 > 교육 사회과학 > 민속 예술 > 미술 예술 > 음악 종교 > 무속	30건
제주문화유산	기술과학 > 건축 기술과학 > 해양 기술과학 > 수산 기술과학 > 의, 식, 주 문학 > 구비문학 문학 > 현대문학 사회과학 > 교육 사회과학 > 문화 사회과학 > 민속 사회과학 > 사회 사회과학 > 여성 순수과학 > 식물 순수과학 > 지질 순수과학 > 해양 순수과학 > 환경 언어 > 제주어 역사 > 4,3 역사 > 고고 역사 > 문화 역사 > 사회 역사 > 인물 역사 > 제주사일반 역사 > 지리 예술 > 기타 예술 > 미술 예술 > 음악 종교 > 기타 종교 > 무속 종류 > 제주학 종류 > 학술조사	190건

이 중에서 기초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주된 콘텐츠로는 제주역사(탐라사), 제주어, 설화, 무형문화유산, 해양유적과 문화, 해녀, 목축, 음식, 건축, 탐라순력도, 이어도, 제주마, 돌담밭, 비석군 등이다. 이들은 제주에서는 중요한 문화요소 군들로 볼 수 있다.

본 센터는 앞으로도 제주의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여 기본연구, 정책연구 등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를 집적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디지털화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역학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4. 지역 문화콘텐츠 자원 -이야기 유산-

제주지역은 가는 곳마다 '이야기 유산'(Story Heritage)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원천소재가 마을마다에 산재하고 있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지닌 힘을 산업경쟁력으로 연계하여 향상시키는 일이 남아있는 과제다.

곧 지역의 이야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용 지원 원천 소재를 조사 발굴하며, 이야기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이야기 기획, 개발, 창작의 활성화 추진, 이야기 전문 기업의 지정과 지원, 이야기 유통센터 구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등 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¹²⁾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¹³⁾이 있어서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도내 마을이야기 유산 속에는 문화콘텐츠화¹⁴⁾ 할 자산이 무궁무진한데, 이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야기 유산의 대표격으로 전설을 꼽을 수 있다. 그 전설을 설명하거나 증거물로서의 '전설지'는 생명을 불어 넣으면 살아 숨쉬는 이야기 유산으로 다시 새로이 탄생된다.

특히 인물과 관련된 전설은 그 마을 출신이면서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로 대표되고 있기에 그 마을의 특성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

이들테면 '날개달린 아기장수'나 장사와 같은 힘센 인물, 힘센 여성, 효자, 열녀, 열부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소재가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날개달린 아기장수'를 지역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주에 남아 전해지는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과 관련된 이야기 유산은 그 스토리유형이 다양하며 제주전역에서 전해지는데, 육지부의 아기장수가 날개가 잘리고 죽임을 당했던 것에 비하면 제주의 아기장수는 죽지 않고 장사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한국법제연구원,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정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1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 12354호, 2014. 1. 28 제정, 2014. 7. 29 시행)

14) 콘텐츠산업진흥법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아기 장수설화를 대하소설 태백산맥과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만큼 그 가치를 지닌다고도 했는데, 그 바탕에는 실제적 삶이 있어서 옛날이야기의 속살이 잘 드러난다¹⁵⁾

제주 전설 속의 아기장수는 ‘강정마을의 쌍둥이 아기장수’, ‘날개달린 밀양박씨’, ‘홍장사’, ‘한연한배임제’, ‘문사령’ 과 같은 유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제 역사인물 속에서는 ‘김통정’이나 ‘이재수’, ‘부대각’과 같은 인물도 날개가 달렸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제주는 지세(地勢)가 좋아서 장차 왕이 태어날 땅, 곧 왕후지지(王侯之地)로서,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출현이야말로 제주 사람의 소망과 염원의 반영이기도하다. 아기장수가 태어나서 한 시대 상황에 의한 횡포와 탄압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적 갈등극복의 한 방법으로 끝내 아기장수를 죽이지 않고 날개만 자르고 살아가게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의 아기장수 이야기 속에는 비범한 인물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평민집안에서의 장수의 출현을 터부시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 육지부의 경우, 반사회적인 아기장수를 죽여서 거부한데 반해 제주사람들은 아기장수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특이한 요소로 자리한다.

결국 제주의 아기장수는 날개 없이 힘이 센 장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제주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 대상인 ‘날개달린 장수’를 바라는 제주민의 의지 표현의 한 방식이다.

곧 아기장수의 날개를 자르는 행위는 비상하는 욕망의 일시적 좌절이라 할 수 있으며, 행동하는 비범성과 해적을 무찌를 수 있는 장사의 힘이 내포된 휴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 아기장수의 탄생과 죽음은 자연스레 풍수지리적인 면을 강하게 반영하는데, 조부의 묘가 ‘장군대좌형’이어서 이장을 위해 묘를 파면 황새(소)가 날개를 펴서 퍼덕이고 있거나, 묘 속의 콩은 말이 되고 팔은 군사가 되었다는 등 스토리 전개로 나타난다.

이는 아기장수를 염원했던 제주민들의 희망과 기대, 이상과 염원이기도 했다. 왕이나 왕후가 태어나는 왕후지지의 땅을 지키기 위해 한라산 광양당신은 중국의 술사인 호종단의 단혈을 막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차귀섬 전설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날개달린 아기장수’ 그리고 ‘왕후지지의 땅’, 이런 요인들이야말로 문화콘텐츠로서 세계적 자산으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며, 제주민의 정체성 정

15) 서울신문, 2015.06.30 기사 참조.

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학의 모범 소재라 할 수 있다.

5. 결어

본고에서는 세계 문화와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학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이야기유산의 발굴과 핵심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학은 단지 연구전문가 만의 몫이 아니라 창조적인 지역민 또는 향유자이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창조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지역학의 연구성과물은 문화다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데, 지역문화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중요한 브랜드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제주의 전통문화 속에는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금광에서 노다지를 캐내듯이 제주 이야기 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제주학이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이란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수행된 제주학 연구센터의 사업으로 다음의 몇 가지가 실례를 꼽을 수 있다. 제주학 정책연구와 연구자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지원 사업이 있다. 또 연구자의 연구결과인 제주학 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제주학국제학술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개최로 제주학 연구의 대중화와 제주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전통문화 속에 남아있는 지역학 요소들을 발굴하여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하며, 대내외로 제주학의 학문적 성과들을 제공하여 제주의 문화진흥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이는 제주학의 미래 지향적 가능성의 실현을 구현해나가는 일이며, 제주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